

자료 2025-03-14 / SINCE 1990~

#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광주은행

### ◆ 북구 청소년 교복 후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이 광주 북구 청소년을 위한 교복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학기 사랑을 입어요’ 교복 후원 사업은 교복과 활동복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신학기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광주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이다.

지난 2016년부터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교복 후원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총 1억 원 후원금을 전달했다.

고병일 은행장은 “우리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 누적 평균 수익률 전 은행권 1위 달성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모델포트폴리오(이하 MP) 출시 이후 누적 평균 수익률이 전 은행권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한 2024년 12월 말 기준 일임형 ISA 수익률에서 고위험 MP는 62.62%, 중위험 MP는 41.02%, 저위험 MP는 21.75%를 기록하며,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누적 평균 수익

률을 달성했다.

고병일 은행장은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당행의 선진국 투자 전략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좋은 성과를 이뤄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익률 관리를 통해 더욱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신세계

### ◆ 대한적십자사 최고명예장 수상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가 14년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며 최근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은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5,000만원 이상 기부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포장증이다.

광주신세계는 2010년부터 광주·전남 지역 내 취약계층을 꾸준히 지원하며 나눔을 이어왔다. 특히, 코로나19,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지역 사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적극적인 기부를 실천하며 인도주의 가치를 몸소 보여줬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광주신세계는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지역과의 상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 서구청에 한강 책 400권 기부..."또 다른 노벨상 기원"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가 광주시 서구에 한강 작가의 대표작 및 추천도서 400권을 기부했다.

광주신세계는 이 자리에서 한강 작가의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와 ‘채식주의자’ 등 600만원 상당의 도서 400권을 서구청에 기부했다. 광주신세계가 기부한 도서는 서구 구립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등에

전달돼 시민들이 자유롭게 대여해 읽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다짐을 실천하고자 현지법인으로 출범한 광주신세계가 3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2025년에 한강 작가의 도서를 시민들에게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기부한 도서를 통해 많은 분들이 문학에 관심을 갖고 또 다른 한강 작가가 탄생하기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 ◆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 사업장(근로자) 대상 수요처 확대 노력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설명진)는 지난해 10월 빚고을 50+센터와 협업으로 퇴직 등 생애전환기를 맞은 장년층을 위해 생애재설계 상담과 노후준비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사업은 '21년도 10월 빚고을50+센터 개소 이후 노후 준비 서비스 제공 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와 MOU를 체결하여 해마다 협업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빛나는 노후준비 아카데미 1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노후준비 아카데미란 노후준비에 필요한 4대 영역(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전문 강의와 개별 상담을 통해 노후준비 인식 개선을 위한 형태의 교육을 일컫는다.

설명진 본부장은 “올해에는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확대함으로써 100세 시대를 살아야하는 요즘 「노후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라며 수요처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신청시 (15명 이상, 1시간 이상)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진행 할 예정이다

(교육문의: 062-958-2124)



## 금호타이어

### ◆ AGT철도차량 전용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 출시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는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AGT철도차량 전용 타이어 모니터링 제품을 개발해 경기 의정부 경전철인 유라인 노선에서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AGT철도차량은 도심과 교외 지역을 연결하는 소형 철도 시스템으로, 기존 지하철에 비해 건설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소음과 진동, 승차감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지녔다. 특히 타이어 차륜형 AGT철도차량은 도심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금호타이어는 작년 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철도연구원, 코아칩스와 AGT철도차량의 타이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모듈 및 수신 장치를 개발하여 실제 노선 테스트를 완료하고 KC 인증을 획득했다.

AGT철도차량 전용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은 센서 모듈과 수신 장치로 구성된다. 센서 모듈은 타이어와 휠 내부에 장착돼 공기압과 온도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수신 장치는 전송되는 데이터를 수집해 차량의 타이어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타이어 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타이어 마모·교체 주기 등을 최적화해 점검 작업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정일택 대표이사는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 개발에 집중해 버스 타이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넘어 AGT철도차량을 비롯한 철도차량 분야로 기술 적용을 확장하고 있다"며 "타이어 특성에 맞춘 진동과 하중을 고려한 맞춤형 시스템을 통해 안전성, 효율성 및 타이어 수명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 김경훈 책임, 세정협조자 선정...기재부 장관상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에 따르면 김경훈 책임은 관세청이 주관한 2025년 납세자의 날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 책임은 수출입 통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수출에 기여한 점과 연간관세 17억원, 부가치세 402억원 등 금호타이어의 관·부가세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 점을 높게 평



AEO 수출수입부문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달 ‘착한가정’에 후원하는 남모를 선행도 이어오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국세청과 합동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선진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한 납세자의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로 구분해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 디케이

### ◆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 내용을 알리고, 이를 이어갈 새로운 참가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디케이 주식회사는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기업 운영 전반에 반영하며, 친환경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회사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보곤 대표이사는 “다음 참가자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재단 최영준 이사장을 지목하며, 캠페인의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 받았다. 또 관세청 범규준수도 99점(동종업종 범규준수도 89점)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한 점도 인정 받았다.

특히 지난 2016년 AEO인증 획득 이후 현재까지 광주, 곡성, 평택공장 및 용인중앙연구소, 서울사무소, 광양물류센터 등 6개 사업소에 대한

디케이(대표이사 김보곤)가 환경 보호 실천을 다짐하며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부가 2023년 8월부터 주관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는

## 보해양조

### ◆ 전남도와 ‘쌀 나눔’ 상생 눈길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취약 계층을 위해 전남도에 2억6000만 원을 기탁했다

전남도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종진 보해양조 센터장, 이동극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남지역 농민이 생산한 쌀 10kg1만1000포를 구입해, 22개 시군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가정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보해양조는 목포에 본사를 둔 전남도 인증 1호 향토기업이다. 2023년 전남체육인재 장학금 5000만 원 기부, 2024년 전남농협과 5억 원 규모 쌀 구매 협약을 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임지선 대표이사는 “이번 기부가 전남 농민과 취약계층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밝혔다.

## 삼성전자

### ◆ 사운드바, 11년 연속 글로벌 판매 1위 달성



19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를 달성한 삼성전자가 사운드바(Soundbar) 시장에서도 11년 연속 글로벌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시장조사업체 ‘퓨처소스(FutureSource)’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4년 글로벌 사운드바 시장에서 금액 기준으로 20.1%, 수량 기준 18.4%의 점

유율을 기록하며 2014년부터 이어온 1위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출시한 최상위 ‘HW-Q990D’를 비롯한 다양한 사운드바 제품들이 △현장감 넘치는 음향 △삼성 TV와 연동되는 ‘Q심포니’ 기능 △편리한 연결성을 앞세워 사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글로벌 매체들의 호평도 잇달았다. 미국 매체 뉴스위크는 최상위 제품인 HW-Q990D를 ‘에디터스 초이스(Editor's Choice)’로 선정하면서 “올해 구매 가능한 사운드바들 중 최고의 서라운드 사운드를 자랑하는 사운드바”라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의 IT 매체 ‘테크리셔스(Techlicious)’는 라이프스타일 사운드바 ‘HW-S800D’를 ‘스타일과 디자인 두가지를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완벽한 선택’이라며 ‘에디터스 초이스(Editor's Choice)’로 선정했다.

삼성전자는 올해에도 AI 기반의 음질과 서라운드 효과 및 다양한 시나리오의 연결성이 강화된 신제품을 선보이며 글로벌 사운드바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이현 부사장은 “몰입감 넘치는 서라운드 경험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면서 “이번 11년 연속 1위를 계기로 앞으로도 더 좋은 음질과 사용성을 갖춘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 한전MCS

### ◆ 2025년 상반기 신입사원 입사식 개최



한전MCS(사장 정성진)는 2025년 상반기 신입사원 입사식(사진)을 개최하며 새내기 직원들과 출발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전MCS 상반기 신입사원 입사식은 정성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과 신입사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사를 시작으로 신

입사원 대표의 합격증 수여, 회사 배지 부착, 청렴 서약서 선서 등으로 진행됐다. 입사식 이후 각 현업 사업소로 배치돼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성진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뛰어난 역량으로 한전MCS의 새로운 주역이 될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축하하며 “큰 꿈과 비전을 갖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 새롭게 거듭나는 한전MCS 변화의 주역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전MCS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정 채용을 위해 직무능력 중심의 NCS기반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해 차별없는 공정한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한전KDN

### ◆ 모범적인 노사협력' 광주노동청장상 수상



한전KDN(사장 박상형)은 지난달 28일 개최된 광주경영자총협회 정기총회에서 건전한 노사관계와 지속 가능한 상생 경영 실천 노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 지방고용노동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전KDN은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는 워라벨(Work-Life Balance) 정책을 강화하고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왔으며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에 공을 들여왔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이번 수상은 노사가 함께 협력하여 만든 성과이기에 더욱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전KPS

### ◆ 2025년 전남 1호 나눔명문기업 가입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올해 전남 관내에서 1호 나눔명문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전KPS는 본사에서 김홍연 사장, 노동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지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명문기업' 가입식을 열고 현판과 인증패를 받았다.

나눔명문기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현물을 제외한 누적기부금액 1억원 이상인 법인 기부자에게 수여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한전KPS는 지난해와 올해 총 3억 원 이상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실버(Silver) 등급을 획득함으로써 전남 소재 기업 중 올해 첫 번째 나눔명문기업 선정기관이 됐다.

김홍연 사장은 “나눔명문기업 가입을 계기로 사회공헌 선도기업으로서 나눔과 상생의 가치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함께 돌아보는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알 림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수용 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 <제45회 정기총회 및 1677회 금요조찬포럼>

### 소통의 리더십

(김정운 문화심리학자)

제45회 정기총회 및 회원 기업 노사협력대상 수상 등 시상식과 김정운 문화심리학자를 초청하여 「소통의 리더십」을 주제로 제1677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 해 동안 노사협력과 모범납세 등 실적이 두드러져 타의 모범이 되는 유공 업체와 유공자를 선정해 2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노사협력 대상에는 오텍캐리어 주식회사(대표이사 정필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표창에는 김선광(주)디에스팩·(주)대성포장산업 대표가 수상했으며, 모범납세는 주식회사 송학토건(대표이사 김익찬)이 수상했습니다.

김정운 박사는“소통의 리더십”를 주제로 의사소통 기본구조, 악수와 입꼬지가 처진 3대 집단 사례, 직장의 기대치, 세대 간 갈등의 원인 및 해결 방안, 세대 간 공존을 위한 핵심 소통기술 방법 등을 강연했습니다.

한편, 리더의 역할과 소통, 신뢰 받는 리더의 공감 소통 스킬, 팀 활성화 소통 스킬, 세대 간 이해와 소통 등을 강조 하면서 기업 성공을 위해서는 소통을 생활화하고 감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노사협력 대상 수상기업과 모범납세 기업 및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포럼에서 “회원 기업들이 소통의 중요성을 인지함으로써 소통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리더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기업 성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통의 리더십”을 현업에 바로 적용하면 좋겠다고 전하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 1. 경제 동향

### ◆ 경제8단체,「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원회 통과에 대한 공동 입장문」발표 (2.24)

- 경총 등 8개 경제단체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함.
  - ※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 〈 주요내용 〉

-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함.
-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수단으로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임.
-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임.
- 경제계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함.

### ◆ 경제6단체, 2025년 제1차「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단 회의」개최 (2.21)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이하 경제계)는 2월 21일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와 공동으로 2025년 제1차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단 회의’를 개최
- 특히 올해부터 여성계(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허명)가 추진본부 공동대표단에 합류해 기존 5인에서 6인 공동대표 체제로 확대
  - ※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 : 손경식 경총 회장(경제계),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금융계), 이광형 KAIST 총장(학계), 박장범 KBS 사장(방송계), 진우스님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종교계),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여성계)
- 이날 공동대표단 회의에서는 ‘우리아이 우리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2025년 추진본부 사업에 대한 각 부문별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
  - 경제계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정착과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특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저출생 정책의 실수요자인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대국민저출생·고령화 정책 공모전」을 추진할 계획

### ◆ 한국은행, 「경제전망(2025년 2월)」 발표 (2.25)

-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25년 1.5%, 2026년 1.8%로 전망
  - ※ 지난 '24.11월 전망 대비 2025년 성장률 전망치는 0.4%p 하향 조정, 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동일하게 유지
  - ※ 지출항목별 증감률 '24년 실적치(속보치 기준) 및 '25년, '26년 전망치(한국은행)
    - [민간소비] 1.1('24)→ 1.4('25)→ 1.8('26)    [재화수출] 6.3('24)→ 0.9('25)→ 0.8('26)
    - [건설투자] 2.7('24)→ 2.8('25)→ 2.5('26)    [설비투자] 1.8('24)→ 2.6('25)→ 2.0('26)
- 올해 경제성장률은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지난 11월 전망치(1.9%)를 크게 하회하는 1.5%로 전망
- 2026년에는 통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있으나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되면서 2025년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전망('25년 1.5%→'26년 1.8%)
-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달러환율 상승에 따른 상방요인과 낮은 수요압력, 정부 물가 안정대책 등 하방요인이 상쇄되면서 11월 전망에 부합한 1.9%로 전망
- 2025년 경상수지는 최근 통상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흑자규모가 지난 11월 전망(800억달러)을 하회하는 750억 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24년 16만명에서 2025년 10만명으로 둔화될 전망. 2025년 실업률은 2.9%로 전망(2024년 11월 전망치와 동일).
- 한국은행은 향후 전망경로상에서 글로벌 무역갈등의 전개 양상이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인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안적 시나리오를 분석
  - (낙관 시나리오: 무역갈등 조기 완화) 미국이 올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 기본 시나리오
    - ※ 대비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2026년에는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할 경우, 국내 성장률은 기본전망 대비 2025년 +0.1%p, 2026년 +0.3%p 높아질 것으로 예상. 물가상승률은 2025년중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2026년에는 기본전망보다 +0.2%p 높아질 것으로 추정.
    - ※ 국내정치 불확실성 및 美 관세정책 기본 시나리오: [국내정치 불확실성] 올해1/4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4분기 이후 점차 해소되면서 하반기중 경제심리가 이전 수준을 회복 [관세정책] 미국은 주요 무역적자국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관세를 금년중 부과('24.11월 전망 때 예상했던 것보다 관세정책이 조기 시행되고 인상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통상환경 불확실성도 증대)
  - (비관 시나리오: 무역갈등 심화) 미국과 여타국이 상호보복하에 금년중 큰 폭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에도 고관세를 유지하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 이 경우 우리 성장률은 2025년 기본전망 대비 0.1%p, 2026년에는 0.4%p가 될 것으로 예상. 물가상승률은 올해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2026년에는 기본전망보다 0.3%p 낮아질 것으로 추정.

###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발표 (2.25)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존 3.00%에서 2.75%로 0.25%p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
  - ※ 한국은행은 2023년 1월(3.50%) 이후 2024년 8월까지 20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 2024년 10월, 11월에는 기준금리를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 1월에는 동결을 결정(3.00%) 했고, 2025년 2월에는 0.25%p 인하를 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3.00%에서 2.75%로 인하하기로 결정
  - \*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률 추이(통계청) : 1.6('24.9)→ 1.3(10)→ 1.5(11)→ 1.9(12)→ 2.2('25.1)
  - \* \* 최근 가계대출 증가율 추이(전기대비, 한국은행) : 0.3('23.4q)→ 0.0('24.1q)→ 0.8(2q)→ 0.9(3q)→ 0.6(4q)

### ◆ 고용노동부, 「2025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26)

#### < 고용 부문('25.1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종사자 수) 사업체 종사자는 1,989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2천명(0.1%) 줄어 들며 감소세로 전환
- (입·이직) 입직자는 104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명(9.6%) 감소했고, 태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5천명(3.0%) 감소

#### < 근로실태 부문('24.1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명목 임금)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 임금총액은 460만 8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 5천원(4.0%) 증가
- (총 근로시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7.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0시간(3.3%) 증가
  - ※ '24년 12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1일 증가(20일 → 21일)

#### [ 2024년 연간 근로실태 ]

- (명목 임금) 2024년 연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 임금총액은 407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1만 3천원(2.9%) 증가
- (총 근로시간) 2024년 연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4.9시간으로 전년

대비 1.3시간(0.8%) 감소

- ※ 2024년 연간 근로시간 감소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간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 대비 1일 감소한 데다,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자 수 증가한 데 기인

### ◆ 통계청, '2023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발표 (2.25)

- 2023년 12월 임금근로일자리에서 일한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63만원으로 전년대비 2.7%(10만원) 증가했고, 중위소득은 278만원으로 전년대비 4.1%(11만원) 증가

\* 소득을 크기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값

#### 〈 기업 특성별 소득 〉

- (조직형태별 평균소득) 회사법인(413만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정부·비법인단체(352만원), 회사외 법인(348만원), 개인기업체(218만원) 순
- (기업규모별 평균소득) 대기업(593만원), 비영리기업(349만원), 중소기업(298만원) 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영리성이 있는 기업체를 매출액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
- (종사자규모별 평균소득) 종사자 수 300명 이상(477만원), 50~300명 미만(364만원), 50명 미만(271만원) 순
- (산업별 평균소득) 금융·보험업(753만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전기·가스공급업(675만원), 국제외국기관(510만원), 정보통신업(502만원), 광업(500만원), 제조업(469만원),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36만원),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415만원) 등 순

### ◆ 통계청, '2024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2.27)

#### 〈 2024년 4/4분기 가계동향 〉

- 2024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1만 5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8% 증가(실질소득 2.2% 증가)
  - \* 전국 1인 이상 일반가구(1인 가구 및 농림어가 포함)
  - ※ 가구당 월평균 소득 분기별 증가율 추이(%) : 3.9('23.4q)→ 1.4('24.1q)→ 3.5(2q)→ 4.4(3q)→ 3.8(4q)
- 소득항목별로 경상소득은 510만 4천원(전년동기대비 3.6% 증가)을 기록했고, 경상소



득 중 근로소득은 324만 1천원(2.3%), 사업소득은 109만 1천원(5.5%), 이전소득은 70만 9천원(5.6%)을 기록. 비경상소득은 11만 1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1% 증가

\*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등)은 전년동기대비 7.3% 증가, 사적이전소득(부양의무자, 친인척 등에게 받은 금액)은 전년동기대비 1.9% 증가

\* \* 정기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경조소득, 보험 탄 금액 등)

○ 2024년 4/4분기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분위(하위 20%)가 121만 3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했으며, 소득 5분위(상위 20%)는 1,119만 9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7% 증가

- (1분위 소득) 정상소득은 사업소득(7.9%), 근로소득( 4.3%)은 감소했으나, 재산소득(25.8%), 이전소득(7.8%)은 증가. 비경상소득(27.0%)도 증가

\*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24년 2분기(7.5%) 이후 3개 분기 연속 감소

\* \* 공적이전소득은 9.0% 증가, 사적이전소득은 4.7% 증가(전년동기대비 기준)

- (5분위 소득) 정상소득은 재산소득(15.5%), 사업소득(9.8%), 이전소득(6.4%), 근로소득(0.5%)이 모두 증가. 비경상소득(16.2%)도 증가

\* 공적이전소득은 4.1% 증가, 사적이전소득은 11.1% 증가(전년동기대비 기준)

○ 2024년 4/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8배로 전년동기(5.30배)대비 0.02배p 하락하여 상·하위 가구 간 소득분배 개선

\*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목적으로 「가구 처분가능소득 ÷ 가구원수」로 산출(OECD기준)

#### 〈 2024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 〉

○ 2024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9만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실질소비지출은 1.2% 증가)

- 음식·숙박(5.2%), 주거·수도·광열(6.5%), 오락·문화(7.9%), 식료품·비주류음료(3.8%) 등에서 지출 증가

- 소비자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교통(2.9%), 의류·신발(1.8%), 통신(1.5%), 주류·담배(3.0%) 등에서 실질소비지출 감소

#### ◆ 한국은행, 「2025년 2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발표 (2.21)

○ (기업심리지수) 2025년 2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5.3으로 전월대비 0.6p 하락하였으나, 2025년 3월 전망 CBSI는 88.0으로 전월대비 2.6p 상승

\* 전산업 CBSI 추이 : 92.5('24.10)→ 91.8(11)→ 87.3(12)→ 85.9('25.1)→ 85.3(2)

- (제조업) 2025년 2월 제조업 CBSI는 90.1로 전월에 비해 1.1p 상승하였으며, 2025년 3월 제조업의 전망 CBSI는 91.1로 전월에 비해 2.0p 상승

- \* 제조업 CBSI 추이 : 93.0('24.10)→ 90.9(11)→ 87.1(12)→ 89.0('25.1)→ 90.1(2)
- **(비제조업)** 2025년 2월 비제조업 CBSI는 81.7로 전월에 비해 1.9p 하락하였으나, 2025년 3월 전망 CBSI는 85.8로 전월에 비해 3.2p 상승
- \* 비제조업 CBSI 추이 : 92.1('24.10)→ 92.5(11)→ 87.5(12)→ 83.6('25.1)→ 81.7(2)
- **(기업경기실사지수)** 2025년 2월 업황BSI는 63\*으로 전월에 비해 1p 하락하였으며, 2025년 3월 업황전망BSI는 66으로 전월에 비해 2p 상승
- \* 업황BSI 추이 : 69('24.10)→ 69(11)→ 64(12)→ 64('25.1)→ 63(2)
- **(제조업)** 2025년 2월 업황BSI는 65로 전월에 비해 2p 상승하였으며, 2025년 3월 업황전망BSI는 69로 전월에 비해 4p 상승
- \* 제조업 업황BSI 추이 : 69('24.10)→ 68(11)→ 62(12)→ 63('25.1)→ 65(2)
- **(비제조업)** 2025년 2월 업황BSI는 61로 전월에 비해 3p 하락하였으나, 2025년 3월 업황전망BSI는 65로 전월에 비해 2p 상승
- \* 비제조업 업황BSI 추이 : 70('24.10)→ 69(11)→ 65(12)→ 64('25.1)→ 61(2)

#### ◆ 통계청,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3.4)

- **(생산)** 2025년 1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2.3%), 서비스업(0.8%)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2.7% 감소(전년동월대비 3.5% 감소)
  - \*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 기록 ▸ 전산업생산지수 증감률 추이(전월대비): 0.3('24.9)→ 0.5(10)→ 1.2(11)→ 1.7(12)→ 2.7('25.1)
- 광공업생산은 기타운송장비(2.8%)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기계장비(7.7%), 전자부품(8.1%)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2.3% 감소(전년동월대비 4.1% 감소)
- 서비스업생산은 정보통신(4.7%)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도소매(4.0%), 운수·창고(3.8%)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0.8% 감소(전년동월대비 0.9% 감소)
- **(제조업 평균가동률)** 2025년 1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8%로 전월대비 0.5%p 상승
  - \*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 73.3('24.9)→ 73.1(10)→ 71.1(11)→ 73.3(12)→ 73.8('25.1)
- **(제조업 재고율)** 2025년 1월 제조업 재고율은 110.1%로 전월대비 6.5%p 상승(전년동월대비 2.2%p 상승)
  - \* 제조업 재고율은 제조업 재고지수를 제조업 출하지수로 나눈 값으로, 출하된 물건보다 쌓인 물건이 더 많을 때 100%를 초과.
  - \* 제조업 재고율 추이: 106.6('24.9)→ 111.0(10)→ 113.6(11)→ 103.6(12)→ 110.1('25.1)
- **(소매판매)** 2025년 1월 소매판매는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1%)에서 판매가 늘

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2.6%), 화장품 등 비내구재(0.5%)에서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0.6% 감소(전년동월대비 보합)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추이(전월대비) : 0.7('24.9)→ 0.7(10)→ 0.7(11)→ 0.2(12)→ 0.6('25.1)

\*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2023년 12월(0.6%)부터 2024년 12월(2.5%)까지 13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올해 1월에는 보합 수준에 그침.

- **(설비투자)** 2025년 1월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12.6%) 및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7.5%)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14.2% 감소(전년동월대비 3.1% 감소)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 추이(전월대비) : 5.7('24.9)→ 3.4(10)→ 1.7(11)→ 7.5(12)→ 14.2('25.1)

\* 2020년 10월(16.7%)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 기록

- **(건설투자)** 2025년 1월 건설투자는 건축(4.1%) 및 토목(5.2%)에서 공사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대비 4.3% 감소(전년동월대비 27.3% 감소)

\* 건설투자는 전월대비 기준으로 '24.8월(2.1%) 이후 6개월 연속 감소 ▶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전월대비): 2.0('24.9)→ 0.5(10)→ 3.1(11)→ 1.9(12)→ 4.3('25.1)

\* \* '98.10월(27.6%) 이후 26년 3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 기록

- **(경기지수)**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4(전월대비 0.4p 하락),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4(전월대비 0.3p 하락) 기록

### ◆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2월 수출입 동향」 발표 (3.1)

- **(총괄)** 2025년 2월 수출은 526.0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 증가(1~2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7% 감소)했으며, 수입은 483.0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0.2% 증가

\* 수출 증감률 추이(전년동월비) : 4.6('24.10)→ 1.3(11)→ 6.6(12)→ 10.2('25.1)→ 1.0(2)

- 2025년 2월 무역수지는 43.0억 달러 흑자를 기록

\* 무역수지 추이(억 달러) : 31.7('24.10)→ 55.7(11)→ 64.9(12)→ 18.6('25.1)→ 43.0(2)

- **(품목별)** 15대 주력 품목(전체 수출의 약 77%를 차지) 중 무선통신기기(42.3%), 컴퓨터(28.5%), 자동차(17.8%), 바이오헬스(16.1%)를 제외한 11개 품목의 수출이 모두 감소

※ **2025년 2월 15개 품목별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무선통신기기) 42.3, (컴퓨터) 28.5, (자동차) 17.8, (바이오헬스) 16.1, (섬유) 0.7, (석유화학) 2.2, (반도체) 3.0, (자동차부품) 4.1, (가전) 4.3, (철강) 4.4, (디스플레이) 5.8, (이차전지) 9.6, (선박) 10.8, (석유제품) 12.2,

(일반기계) 12.3

\* 반도체 수출은 '23.10월(3.1%) 이후 16개월만에 감소로 전환 ▶ 반도체 수출 증가율 추이(전년동월대비) : 40.3('24.10)→ 30.8(11)→ 31.5(12)→ 8.1('25.1)→ 3.0(2)

- (국가별) 9대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 1.4%), 일본( 4.7%), 중남미( 6.3%), EU( 8.1%), CIS( 16.4%) 수출은 감소했으나, 미국(1.0%), 아세안(12.6%), 인도(18.6%), 중동(19.6%) 수출은 증가

### ◆ 통계청, '2025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3.6)

- 2025년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0% 상승
  - ※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전년동월비) : 1.3('24.10)→ 1.5(11)→ 1.9(12)→ 2.2('25.1)→ 2.0(2)
- (지출목적별) 기타 상품 및 서비스(4.1%), 음식 및 숙박(2.9%),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2.3%), 교통(2.2%) 등 12개 부문이 모두 전년동월대비 상승
- (품목성질별) 상품은 전기·가스·수도(3.1%) 등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9% 상승했고, 서비스는 개인서비스(3.0%)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1% 상승
- 2025년 2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9% 상승했고, 소비자들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 상승

### ◆ 한국은행, '2024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3.5)

- 2024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2.0% 성장 2024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지난 속보치('25.1.23)와 동일
  - ※ 최근 5년('20~'24)간 연간 경제성장률 추이('20~'22 확정치, '23~'24 잠정치): 0.7%('20)→ 4.6%('21)→ 2.7%('22)→ 1.4%('23)→ 2.0%('24)
- 민간소비는 재화소비 줄었으나, 서비스 소비가 늘어 전년대비 1.1% 증가.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가 모두 늘어 1.6%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은 늘었으나 건물건설이 줄어 3.0% 감소
- 수출은 IT 품목(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7.0% 증가했고, 수입은 에너지류(원유, 천연가스 등),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2.5% 증가
- 지출주체별 성장기여도를 살펴보면, 2.0% 성장률 가운데 민간에서 1.6%p, 정부에서 0.4%p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549.1조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했으며, 달러



-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6% 성장한 1조 8,689억달러 기록
-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995.5만원으로 전년대비 5.7% 늘었으며, 달러기준으로  
는 36,624달러로 전년대비 1.2% 증가
  - ※ 최근 5년('20~'24)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추이(달러, '20~'23 확정치, '23~'24 잠정치):  
32,204('19)→ 32,004('20)→ 35,523('21)→ 32,886('22)→ 33,745('23)
- GDP디플레이터는 전년대비 4.1% 상승
- 2024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1% 증가(전년동기대비 1.2% 증가)
  - ※ 2024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지난 속보치('25.1.23)와 동일. 다만, 수출(+0.5%p), 정부소비(+0.2%p), 수입(+0.2%p) 등이 상향 수정된 반면, 건설투자(-1.3%p), 설비투자(-0.4%p) 등은 하향 수정

## 2. 노사 동향

### ◆ 2025년 근로감독은 고의·상습 법 위반 사업장 중심으로 강화될 전망

- 고용부는 2. 26 「2025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 정기근로감독은 기존 '적발형'에서 '지원형'으로 개편하고, 단계별로 ① 근로감독 전(前) 자율개선 유도, ② 기초질서 위반 등 감독, ③ 감독 후 컨설팅을 통한 개선 지원으로 진행 예정
  - 수시감독은 고의·상습 법 위반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위반, 부당노동행위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감독 대상도 기업형 유튜버와 같은 새로운 산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 한편, 특별감독은 중대한 법 위반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업장 중심으로 진행하며 근로기준 위반과 산업안전 위반을 함께 단속하는 통합감독을 실시할 계획
    - \* ① 6개월 간 3건 이상 법위반 사업장 중 근로자의 1/3 이상, 5억 이상 체불 사업장, 사업주의 폭행, ②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등 중대한 위법행위로 근로자 사망하거나, 3명 이상의 피해 발생 사업장 등
- 한편, 고용부는 최근 MBC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사회 이슈로 부각된 만큼 직장 내 괴롭힘 감독을 강화할 계획

### ◆ 주요 노동법제도 변경을 둘러싼 정부 및 정치권 논의 난항

- 야당은 양 노총과 간담회, 기자회견 등을 활용해 노조법 제2·3조 개정, 주4일제 도입 등 노동입법 이슈화에 주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 21 양 노총을 각각 방문해 노조법 제2·3조 개정 당론 추진, 주4일제 도입 필요성 등을 주장
  - 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 17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2. 24 양 노총과 함께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개최하는 등 입법 이슈화 모색
    - ※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와 제22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폐기
- 한편, 여야는 ‘연구개발직에 대한 근로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고 이견이 지속해온 반도체특별법 합의 도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야당의 입법활동이 노동계 우호적이라고 비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 25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을 파업현장으로 만드는 법이라고 비판하며 철회 촉구
  - 한편, 여야정은 2. 28 「국정협의회」를 개최해 반도체특별법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나 ‘연구개발직에 대한 근로시간제 적용 예외’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큰 만큼 합의 도출 난항 우려
    - 국민의힘은 ‘연구개발직에 대한 근로시간제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 기간확대, 사후 인가 등 절차 간소화)를 활용한 절충 가능성 시사
    -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은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 국정협의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참석
    - 더불어민주당은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 여부 논의는 진행하되, ‘연구개발직에 대한 근로시간제 적용 예외’ 규정을 포함하지 않은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
- 한편, 경사노위가 계속고용 논의와 관련해 4월까지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야당은 국회 중심으로 입법 논의 추진
  - 더불어민주당은 2. 21 당내에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위원장 : 소병훈 의원)를 설치하고 정년연장 입법안 마련 계획
    -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 13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년연장특위 구성을 제안
  - 반면, 정부·여당은 경사노위에서의 계속고용에 대한 노사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며,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일률적인 정년연장에는 반대 입장 표명

### ◆ 노동계는 조기대선을 의식한 정치활동 강화 예고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되고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는 조기대선 대응 활동 착수
- 한국노총은 2. 26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해 2025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조기 대선을 전제로 대선 정치방침 논의
  - 한국노총은 조기대선을 전제로 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② 노조법 제2·3조 개정, ③ 주4일제 도입, ④ 법정 정년 65세 연장, ⑤ 공무원·교원 정치활동 보장 등을 ‘대선 대응 제도 변경 과제’ 설정
  - 한국노총은 2월 「대선기획단」구성, 3월 「대선정책 요구안 발표」, 4월 「대선후보 정책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5월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대선방침 논의 예정
- 민주노총은 2. 11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25년 주요 사업계획으로 ① 정권퇴진, ② 노동기본권 쟁취, ③ 조기대선 대응 방침 수립 등으로 결정하고 대선방침 수립을 위한 내부논의 착수
  - 민주노총은 조기대선이 실시될 경우 노조법 제2·3조 개정, 초기업 교섭 제도화 등의 입법 요구의 공약화에 주력한다는 계획

### ◆ 경총, 「임금·HR연구 2025년 상반기호」 발간 (3.4)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3월 4일 “디지털 전환기 HR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정기간행물 「임금·HR연구」 2025년 상반기호를 발간
- 경총은 AI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이 향후 HR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번 「임금·HR연구」 상반기호 특집주제를 “디지털 전환기 HR이슈와 전망”으로 선정
  - 주제발표를 맡은 항공주 딜로이트컨설팅 상무는 “AI 중심의 디지털 기술은 조직의 혁신을 촉진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핵심동력”이라고 진단하고, “AI가 성숙해지고 조직 전반에 확산 될수록 HR은 새로운 통찰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창조적 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 연구논단에는 디지털 전환기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HR 이슈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HR 부문별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다섯 필진의 글을 수록
- ※ 연구논단 주제와 집필진
  - 스킬 중심 인재관리와 보상 연계방안 : 손송민 머서코리아 상무
  - AI 기반 초개인화 학습의 핵심 트렌드 : 김주호 KAIST 전산학부 교수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리더십 : 오상진 경희대 인적자원경영MBA 주임교수
- People Analytics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이중학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AI시대 HR이 고려해야 할 새로운 인사노무 이슈 :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AI센터장
- 사례연구에서는 LG CNS와 미국 주요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사례를 소개하고, 특집논단에서는 백진기 한독 대표이사가 지난 40여년 간의 경험을 토대로 HR의 역할과 미래상에 대한 생각을 공유

#### ◆ 고용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계획

- 고용부는 「2025년 근로감독 종합계획」(2. 26)을 통해 고의·상습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3. 5 익명제보 등을 통해 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
  - ※ 근로감독 기간 : '24. 12~'25. 2 / 근로감독 대상 : 120개 사업장
- 근로감독 결과 89개 사업장에서 총 144억원(5,692명)의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 13개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등 사법 절차 진행
- 고용부는 올해 고액 임금체불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 위반과 산업안전 위반을 함께 단속하는 '통합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





# **광주경총 주요 회원서비스 (특전)안내**

## **2025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광주경총 주요 회원서비스 (특전) 안내

## ■ 금요조찬포럼 회원사 무료 참가

- 경제·경영 이슈 및 인문학 등 전문가 초빙 강연
- 회원사 CEO(임원), 기관단체장, 오피니언 리더 대상

## ■ 각종 노동경제 교육 및 연수 무료 참가

- 중대재해 및 노동관계법 현안 등

## ■ 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 및 청·장년층 인재 알선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장년 일자리센터

## ■ 기업 인사노무관리자협의회 참석

- 회원사 인사노무 담당자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 인사노무관리 자료제공 (온·오프라인)

- 최신 노동경제 정보 제공, 도서 발간 배포

## ■ 기업 입장 대변 및 경영계 창구 역할 활용

- 노동경제 관련 법·제도 국회 의정 활동 및 대정부 건의

## ■ 자문위원 무료상담 활용

- 인사, 노무, 회계, 경영, 법무, 무역 분야

## ■ 노동사건 해결 지원 및 노조파업대책 지원

-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관련 사건 지원

## ■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노사협력·고용창출 유공자 포상 및 추천

## ■ 회원 상호간 네트워크 구축 및 비즈니스 교류 지원

## ■ 기타 회원기업 경영애로 해결 지원활동

# 2025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No	사업명	지원대상	기업지원(금액)	문의 (062)
1	광주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	광주 지역 뿌리산업 해당기업 및 재직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직 채용기업 : 월 60만원씩(최대 6개월)</li> <li>· 근속지원금 : 1인 최대 240만원</li> <li>· 공동이용시설 개선 : 기업당 최대 900만원 (자부담금 10% 이상)</li> <li>· 주거비(월세) : 월 30만원씩(최대 6개월)</li> <li>· 건강검진비 : 1인 최대 30만원(연 1회)</li> </ul>	716-3504
2	청년성장 직장 적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지역 소재 기업 (관리자 및 청년층 신입직원)</li> <li>- 관리자(직책,근속기간 제한없음)</li> <li>- 신입직원(최근 3년 내외 채용, 청년층: 만 15세 ~39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자 및 신입직원 일체 교육지원</li> <li>- 관리자: 리더십, 소통, 갈등관리 등</li> <li>- 신입직원: 직장예절, 팀협업, 문서작성 등</li> <li>* 회원사 맞춤형 교육 설계 및 자사교육 가능</li> </ul>	654-3427
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취업 애로청년 채용 기업 및 빈일자리 업종 내 우선지원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업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li> <li>· 근로자 : 18, 24개월 재직 시 최대 480만 원</li> </ul>	716-3424
4	중장년 내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인 이하 중소기업</li> <li>◦ 만 40세 이상 재직자</li> </ul>	· 재직자 이전직 상담, 생애설계 등 기업별 무료 상담	609-8964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